

|                                                                                   |                                                                                                                                                             |                                                 |                    |       |          |
|-----------------------------------------------------------------------------------|-------------------------------------------------------------------------------------------------------------------------------------------------------------|-------------------------------------------------|--------------------|-------|----------|
|  | <b>천주교 서울대교구</b><br><b>구로3동 성당</b><br><b>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b><br><b>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b><br><b>☎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b> | <b>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b> | 주 임 신 부            | 정 재 준 | 사도요한     |
|                                                                                   |                                                                                                                                                             |                                                 | 보 좌 신 부            | 정 혁   | 요셉 (청년부) |
| 전 교 수 녀                                                                           |                                                                                                                                                             | 강 인 석                                           |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       |          |
|                                                                                   |                                                                                                                                                             | 박 경 석                                           |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       |          |
|                                                                                   |                                                                                                                                                             | 정 은 자                                           | 한나 (원장)            |       |          |
|                                                                                   |                                                                                                                                                             | 김 미 리                                           | 에블린 (유·초등부)        |       |          |
|                                                                                   |                                                                                                                                                             | 정 선 아                                           |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       |          |
| 꿀 벌 유치원                                                                           |                                                                                                                                                             | 최 향 숙                                           | 베로니카 수녀            |       |          |
| 요셉어린이집                                                                            |                                                                                                                                                             | 김 아 람                                           | 소화데레사 수녀           |       |          |
| 총 회 장                                                                             |                                                                                                                                                             | 황 태 영                                           | 프란치스코              |       |          |

◎ “성가정 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 구역반     | 세대주 성명 | 세대주 세례명 |
|---------|--------|---------|
| 06구역05반 | 이희승    | 안토니오    |
| 08구역03반 | 조동순    | 엘리사벳    |
| 12구역04반 | 박형순    | 미카엘     |
| 22구역03반 | 김정남    | 루치아     |

◎ 가정간호 사업 중단 (5월 30일)

- 그동안 본당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조순화 힐라리아 간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로당 운영 재개

- 대 상 자 : 코로나 1차 예방 접종 후 2주일 지나신 어르신
- 일 시 : 06월 01일부터 / 오후1시~오후5시
- 간식 및 음식 나눔은 없습니다.
- 경로당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알 림

- 6월 9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06월 06일)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       | 토요주일<br>19:00 | 새벽<br>06:30   | 교중미사<br>10:30 | 주일 낮<br>12:00 | 주일저녁<br>19:00 |
|-------|---------------|---------------|---------------|---------------|---------------|
| 05/30 | 16~20<br>구역   | 21~24<br>기타구역 | 1~5<br>구역     | 6~11<br>구역    | 12~15<br>구역   |
| 06/06 | 21~24<br>기타구역 | 1~5<br>구역     | 6~11<br>구역    | 12~15<br>구역   | 16~20<br>구역   |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6월 07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구 역 반   | 성 명 | 세 례 명 | 이전 본당  |
|---------|-----|-------|--------|
| 1구역 2반  | 김일환 | 보나벤뚜라 | 서울/신당동 |
| 22구역 1반 | 이현숙 | 세시리아  | 서울/사당동 |
| 22구역 3반 | 윤서원 | 제르뚜르다 | 서울/대림동 |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6/0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국수잔치 | 쉽니다. | 청 소 | 05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05월19일 ~ 05월25일)

|              |                                                                         |              |
|--------------|-------------------------------------------------------------------------|--------------|
| • 교 무 금      | .....                                                                   | ·5,295,000 원 |
| • 주일헌금       | .....                                                                   | ·4,656,000 원 |
| • 헌미헌금 2차 헌금 | .....                                                                   | ·558,600 원   |
| • 시설헌금       | 장원재 20만원                                                                |              |
| • 감사헌금       | 김수자10만원 김OO 20만원 김OO 10만원<br>이점임10만원 진소임 5만원 김OO 5만원<br>이정순 2만원 이OO 2만원 |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일    | 해 설 | 복 사     | 독 서     |
|-------|-----|---------|---------|
| 05/30 | 이인옥 | 조흥환 김영균 | 하재민 구민서 |
| 06/06 | 박혜선 | 심재순 최상림 | 최승일 권태희 |

◎ 성체 분배자 명단

| 월일    | 토요주일 | 06:30 | 10:30   | 12:00 | 19:00 |
|-------|------|-------|---------|-------|-------|
| 05/30 | 최석준  | 김인기   | 박승환 이운영 | 박형순   | 박용환   |
| 06/06 | 최승일  | 박승환   | 박용환 김인기 | 박용환   | 박형순   |

## **국경 위의 인간 존엄성 부재**

37. 일부 대중 연합주의 정치 체제와 자유주의 경제적 입장 모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주민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놓이고 긴축 조치를 채택하게 합니다. 지지하기 어려운 이 추상적인 주장 뒤에 수많은 삶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 박해, 자연재해를 피하여 달아납니다. 어떤 이들은 마땅히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를 성취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8. 안타깝게도 또 다른 이들은 “때때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서구 문화에 매료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파렴치한 인신매매범들이 흔히 마약이나 무기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이민들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민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너무도 빈번히 폭력, 인신매매, 신체적 심리적 학대, 다른 무수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주민들은 “출신지와 단절을 겪으며, 문화적 종교적으로 뿌리 뽑혔다는 경험도 하고는 합니다. 그들이 떠난 공동체들도 가장 활기차고 진취적인 구성원을 잃고 분열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가정들, 특히 부모 가운데 한 편 또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본국에 남겨 놓은 채 이주한 경우에 남겨진 가정들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주하지 않을 권리를 재천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자기 조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9. 또한 “이민을 받아들이고 일부 국가들에서, 이민 현상은 자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고 이용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 자신 안에만 갇혀 있을 때에 이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외국인 혐오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타고난 존엄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결정과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가치와 중요성과 인간성을 덜 갖춘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특정 정치적 선호가 우리 신앙의 깊은 확신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출신, 인종, 종교와는 무관한 모든 인간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 그리고 최고의 법인 형제적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확신입니다.

40. “이민들은 전 세계 미래를 이루는 근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주민들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형제적 책임 의식의 상실”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위대한 문화적 종교적 유산에 힘입어, 인간이 지닌 중심성을 수호하려는 도구들을, 그리고 자국 시민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이민의 수용과 그들에 대한 원조 보장, 이 이중의 윤리적 의무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추구하려는 도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41. 이주민들을 마주하여 의심을 키우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자기방어 본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개인 또는 한 민족은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창의적으로 마음을 열어야만 풍요로워진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어 결국 우리가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 차별주의자가 되어 버릴 때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과 그러한 역량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러한 일차적인 반응을 뛰어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합니다.